상반기에 은행 점포 140여개 사라진다

은행들의 영업점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100여개에 달하는 점포가 사라졌다.

29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상반기까지 총 145개의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미 1분기에 96개 영업점을 없앤데 이어 2분기에도 49개를 통·폐합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영업점 통·폐합 숫자인 145개는 지난해 통·폐합 점포수(224개)의 절반을 뛰어넘는 수치다. 그간 4대 은행들은 2018년 12개, 2019년 38개, 2020년 222개, 지난해 224개의 영업점을 감축해왔다.

영업점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인력 감축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퇴직자가 최대 2,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과 인력을 줄이는 이유로 '효율성' 을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비대면화' 가 확산하면서 영업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대면 영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대안으로 상주 인력이 없는 디지털 점포를 설치하거나,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들은 점점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한 은행 지점은 무인창구 전환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전환을 중단한 적도 있다.

금융당국도 무분별한 점포 통·폐합 지양을 권유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등의 흐름은 막지 못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에도 농촌 일손 부족 여전

▲ 사진=shutterstock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준을 완화했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봄철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해 농촌의 인력난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KBS' 에 따르면 경북 고령의 한 딸기 농장은 딸기 수확에 예년 같으면 30명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10명만이 딸기 수확에 나서 수확 시기를 놓친 딸기들이 농장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들 딸기는 상품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 또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가 시행했지만 이미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은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이현광 씨는 "(하루 인건비) 4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오전 근무에 6만 원을 지급한다. 농가마다 인력을 서로 데려가려고 인건비를 올리고 언쟁도 있고, 다툼도 있다." 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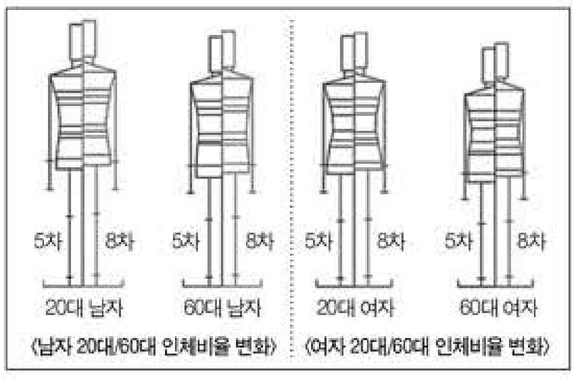
이처럼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급한 대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7천6백여 명에 대해 비자를 5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선 운항이 늘어나고 격리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여 5.3cm' 커졌다

한국인 평균 키가 40년 전과 비교해 남자와 여자 각각 6.4cm, 5.3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뉴시스' 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8차한국인인체치수조사' 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체 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사업이다. 1979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약 5년 주기로 실시해오고 있다.



▲ 남녀 인체비율 변화(5차, 8차),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간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측정항목은 직접 측정 137개, 3차원 측정 293개 등 총 430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자의 평균 키는 172.5cm로 1979년 1차 조사(166.1cm)에 비해 6.4cm 커졌다. 같은 기간 여자는 5.3cm 커진 159.6cm로 집계됐다. 한국인 남자의 절반가량이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자의 평균 체질량 지수(BMI, 몸무게/키)는 24.9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이 가운데 47%는 비만(25 이상)에 해당했다. 여자의 평균 BMI는 22.6으로 40년 동안 22.0~23.1 사이에서 등락을 유지했다.

BMI는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8.5 이하는 저체중, 18.5~22.9는 표준중, 23~24.9는 과체중, 25~29.9는 경도 비만, 30 이상은 중도 비만으로 구분된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